# ESG 동향 뉴스 클리핑

## 이슈 검색 기간: 2024.6.6(목) ~ 2024.6.13(목)

제공일시 2024 06 21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산업통상자원부 kpc 한국생산성본부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6.6(목) ~ 2024.6.13(목)

제공일시 2024 06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EU “내달부터 中 전기차에 25% 추가 관세”… 美 이어 장벽 높인다 / 유럽 관세장벽에도 중국 전기차 수출 의지 강력, 내수시장 포화에 활로 찾아

(중앙일보 2024.6.12) 오삼권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2024.6.12) 김용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함.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의 상계과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음
- 비야디(BYD)·지리(Geely)·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 20%, 38.1%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음
- 한편,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BYD를 비롯한 주요 제조사의 유럽 진출 의지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중국 친환경차 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가까워지며 성장에 한계를 맞고 있어 유럽에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임

### 2. 美, 중국에 HBM 등 첨단 반도체 추가 규제 검토… 한국 영향은? / 美,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심 中신발·알루미늄 등 수입 금지

(이코리아 2024.6.12) 윤수은 기자
(서울경제 2024.6.12) 변수연 기자

-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추가 대중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Gate-All-Around, GAA)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기술에 대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함
- 또, 미국 정부가 중국 소수민족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3곳을 수입 금지 목록에 올렸음
-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공고를 통해 신발 제조업체인 ‘둥관 오아시스 슈즈’, 전해 알루미늄 생산업체 ‘신장 선훠 석탄전기’, 식품 가공업체 ‘산둥 메이지아 그룹’을 제재 대상에 올렸음

### 3. 日, ‘2040 에너지 계획’ 통해 원전 확대 가능성

(이투뉴스 2024.6.10) 조민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유로 내년 이뤄지는 ‘2040 에너지 계획’에서 원자력발전 확대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LNG 수입국이자 석탄 수입국인 일본이 원자력발전 확대조짐을 보임에 따라 호주와 카타르, 미국, 인도네시아 등 화석연료 수출국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음
-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공장과 데이터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50년까지 전력 생산량을 최대 50%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

### 4. 중국 재무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발표

(임팩트온 2024.6.7) 송선우 기자

- 중국 재무부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함
-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2027년까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공시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국가차원의 통합 기준을 수립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재무부는 기업의 자발적 공시에서 법적 의무화로, 상장기업에서 비상장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규제의 강도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 1. 한-카자흐, 온실가스 감축 맞손… 중앙아시아 탄소시장 진출 뒷받침

(전기신문 2024.6.12) 차기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함
- 환경부는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음.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됨

## 2.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14일 시행… 원전 최다 보유 경북도, 기업 투자 유치 청신호

(매일신문 2024.6.10) 양승진 기자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경상북도가 에너지 대기업 유치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짐
- 1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지역분산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담겼음
- 정부는 법 시행 이후 한국전력의 기본 공급 약관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임

## 3. 해수부,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최…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뉴시스 2024.6.10) 박성환 기자

-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 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음. 해양수산부는 11~14일 '해양 분야 주요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지역 리더십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제4차 SOI(지속가능한 해양이니셔티브) 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이 개최된다고 10일 밝혔음
- 포럼에서는 전 세계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회복해 나가자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구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 또,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등을 논의함

## 4. 178일 만에 순방 재개 尹… '韓-중앙亞 5개국' R·O·A·D 체계 신설

(서울경제 2024.6.8) 강도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16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함.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하는 것임
-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각종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3국과 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임
- '한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 국내에서 첫 회의를 열 계획임

## 5.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밸류업 계획' 공시 의무

(내일신문 2024.6.5) 김영숙 기자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은 내년부터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도 공시해야 함. 밸류업 계획 수립 여부와 이사회가 참여했는지, 투자자와의 소통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함
-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은 자산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임.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됨
- 문제는 기업들이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것임. 기업들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59%로, 전년대비 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음

## 1. 토탈에너지스, 자사 유럽정유소에 15년간 그린수소 공급… 탈탄소화

(임팩트온 2024.6.11) 홍명표 기자

- 거대 에너지 기업인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스가 미국의 산업용 가스기업인 에어프로덕츠앤케미칼스(Air Products and Chemicals)와 함께 2030년부터 유럽에 연 7만톤 규모로 그린수소를 15년간 공급한다고 로이터가 7일(현지시각) 전했음
- 이 계약은 토탈에너지스가 그린수소를 현물로 공급받는 최초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번 계약에 따라 에어프로덕츠는 자사의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토탈에너지스의 북유럽 정유소에 그린수소를 공급하게 됨

## 2. 에너지에 꽂힌 IT거물들… 빌 게이츠, 美 '1호 SMR' 첫 삽

(한국경제 2024.6.11) 김세민 기자

-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설립한 에너지기업이 미국 최초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들어감
- AP통신은 10일(현지시간)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차세대 SMR 실증단지 착공식을 열었다고 보도함
-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세계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미국 정보기술(IT) 거물들은 SMR을 비롯한 차세대 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3. EU-중국 무역전쟁 전운에… "볼보 전기차 생산, 중국→벨기에"

(연합뉴스 2024.6.9) 이신영 기자

- EU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볼보가 일부 모델의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짐
-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일판 선데이타임스는 볼보가 전기차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벨기에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함
- 벨기에로 생산 기지가 옮겨지는 모델은 EX30과 EX90로 예상됐음

## 4. 日히타치, '전체 20%' 5만명 AI 인재로 육성… 신규 서비스에 투입

(연합뉴스 2024.6.9) 박상현 기자

- 일본 대기업 히타치제작소가 생성형 AI를 사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인재를 2027년까지 5만 명 규모로 육성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히타치는 정보통신(IT)과 철도 등 국내외 주요 부문 사원을 AI 인재로 길러 IT, 철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임

## 5. 아마존 로보택시 죽스, 시험 운행 오스틴·마이애미로 확대

(연합뉴스 2024.6.6) 김태종 기자

- 아마존이 자율주행 무인차량(로보택시)의 시험 운행을 확대함.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Zoox)는 텍사스주 오스틴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시험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죽스는 "두 도시의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지구 인근 소규모 지역에 개조된 도요타 SUV 하이랜더 시험 차량이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함
- 이들 도시의 시험 운행은 미 서부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임

### 1. LS에코에너지 英 사업 부지 협상 돌입… “유럽 해저케이블 전진 기지”

(서울경제 2024.6.12) 허진 기자

- LS에코에너지가 영국 해저케이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음
- LS에코에너지는 영국 북동부 타인(Tyne)항으로부터 부지 임대를 위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해 연내 부지 임대조건 등 협상을 완료할 계획임. 항만을 포함해 약 15만 4711㎡(4만 6800평) 규모임
- 이번 협상은 영국의 에너지 분야 투자사인 GIG와 공동으로 진행함

### 2. 포스코인터, 구동모터코아 폴란드 공장 착공… ‘무역장벽 리스크 해소’

(이투데이 2024.6.12) 이동욱 기자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북미시장에 이어 올해는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거점 마련에 나섬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1일(현지시간) 폴란드 오폴레주 브제크시에서 신규 구동모터코아 공장(Posco International Poland e-Mobility, PI-PEM) 착공식을 했다고 12일 밝혔음
- 10만$m^2$ 규모의 부지에 세워질 폴란드 신공장은 2025년 중순에 완공될 예정임
- 현대기아차의 유럽 현지생산 전기차에 적용될 구동모터코아 103만 대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할 예정임

### 3.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모색

(글로벌이코노믹 2024.6.12) 노정용 기자

-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에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시설 등 재생에너지(RES) 사업 진출을 도모함
- 카자흐스탄 투자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정승찬 현지 법인장과 가비돌라 오스판쿨로브 투자위원회 위원장의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 4. SK에코플랜트, 베트남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준공/ SK에코플랜트, 19兆 카자흐스탄 리튬 광구 개발 힘 보탠다

(아주경제 2024.6.11) 우주성 기자
(서울경제 2024.6.10) 김민경 기자

- SK에코플랜트가 올해 베트남 산업단지 내 ‘지붕 태양광(Roof Top Solar)’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섬. 태양광 전력 생산은 물론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임
-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가소비형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또, SK에코플랜트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 길에 동행해 리튬 광구 개발 등 핵심 광물 자원 확보와 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을 논의함

### 5. LG엔솔, ‘꿈의 배터리’ 바이폴라 개발 본격 착수/ LG에너지솔루션, 美 ADI와 배터리관리 칩 경쟁력 강화 맞손

(서울경제 2024.6.6.) 노해철 기자
(이뉴스투데이 2024.6.5) 김종현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부피당 에너지밀도를 대폭 개선한 ‘바이폴라’ 배터리 개발을 본격화함
- 전고체 배터리 셀 안에 전극을 여러 개 적층해 전압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전기차 탑재 시 기존보다 강력한 출력과 높은 공간 활용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ADI(Analog Devices, Inc.·아나로그디바이스)와 BMTS(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음
-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2년간 고성능 배터리 관리칩(Battery Management Integrated Circuit, BMIC) 공급 및 정밀한 배터리 온도 측정 알고리즘 구축을 통한 향상된 고속 충전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함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6.6(목) ~ 2024.6.13(목)

제공일시 2024 06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유럽연합과 일본의 협력…그린수소를 위한 기준될까?

(임팩트온 2024.6.7) 유미지 기자

- EU와 일본이 수소 사업 및 기술 개발에 관한 협력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 유랙티브, 닛케이 신문을 비롯한 다수의 외신이 보도했음
- 일본에서 열린 고위급 수소 비즈니스 포럼에서 EU의 카드리 심슨 에너지 집행위원과 일본의 사이토 켄 경제산업부 장관은 2040년까지 수소 사업 및 기술 개발에 관한 협력을 맺음. 이는 지난 2021년 5월 일본과 EU 지도자들이 합의한 녹색동맹(Green Alliance)이 구체화된 것임
- 유럽의 경우, 수소는 러시아산 화석 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옵션 중 하나임. EU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그린수소 1000만톤을 역내 생산, 1000만톤은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향한 국가의 길의 일부인 액화천연가스를 점진적으로 대체할 새롭고 깨끗한 공급원으로 수소를 염두에 두고 있음.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청정 수소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향후 15년 동안 3조엔(약 26조40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이들은 2022년 12월 EU-일본 수소 협력 양해각서(MoC)를 체결했으며, 이후 2023년 7월 일본-EU 정상회담에서 기본 틀을 갖춘 바 있음
- 유럽과 일본 기업이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표준 제안에 대한 논의는 이르면 올여름부터 시작될 예정임. 현재 수소 산업에 대한 명확한 국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닛케이 신문은 전했음
- 이번 협력으로 EU와 일본은 전기를 사용해 물을 분해해 수소를 방출하는 전해조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됨. 또, 액화수소를 적재하고 운송하는 기술 및 국제 무역에 관한 규제 요구 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 교환 등이 포함될 것으로 거론됨. 수소 연료전지차의 핵심 요소인 수소 순도 기준도 논의할 예정임
- EU-일본 수소 로드맵은 양측의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목표에 맞춰 조정될 것으로 알려짐. 일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2040년 회계연도의 목표 전력 믹스를 포함하는 에너지 계획을 세울 예정임
- EU와 일본이 협력하는 이유는 수소임. 연료전지 자동차와 수소 공급망을 촉진하려는 자체 계획을 갖고 있는 중국의 수소 과잉 생산 위험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것임
- 파이낸셜타임즈는 EU가 2010년대 태양광 제조 산업이 중국에 넘어간 이후 풍력, 수소 등 다른 부문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했음
- 이번 협력의 목표는 표준을 조정함으로써 유럽과 일본 기업이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더 저렴한 중국 경쟁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임